

2019년 국민 통일인식 조사 결과 (요약)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북한 및 통일, 대북정책 등에 대한 국민 의식을 조사하여 통일 관련 연구 및 방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조사 대상: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 유효 표본: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pm 3.1\%p$)
- 조사 방법: RDD(임의전화걸기) 방식을 통한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
(혼합비율: 유선전화 30%, 무선전화 70%)
- 표본 추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후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
(2019년 6월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
- 조사 내용: 북한 및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
북핵 문제와 대북정책,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견
- 응답률: 전체 응답률 14.8%
(유선전화 응답률: 12.5%, 무선전화 응답률: 16.0%)
- 조사 기간: 2019년 8월 1일(목) ~ 8월 5일(월) (5일간)
- 조사 주체: KBS 남북교류협력단, 공영미디어연구소
- 조사 기관: 리서치립

2. 표본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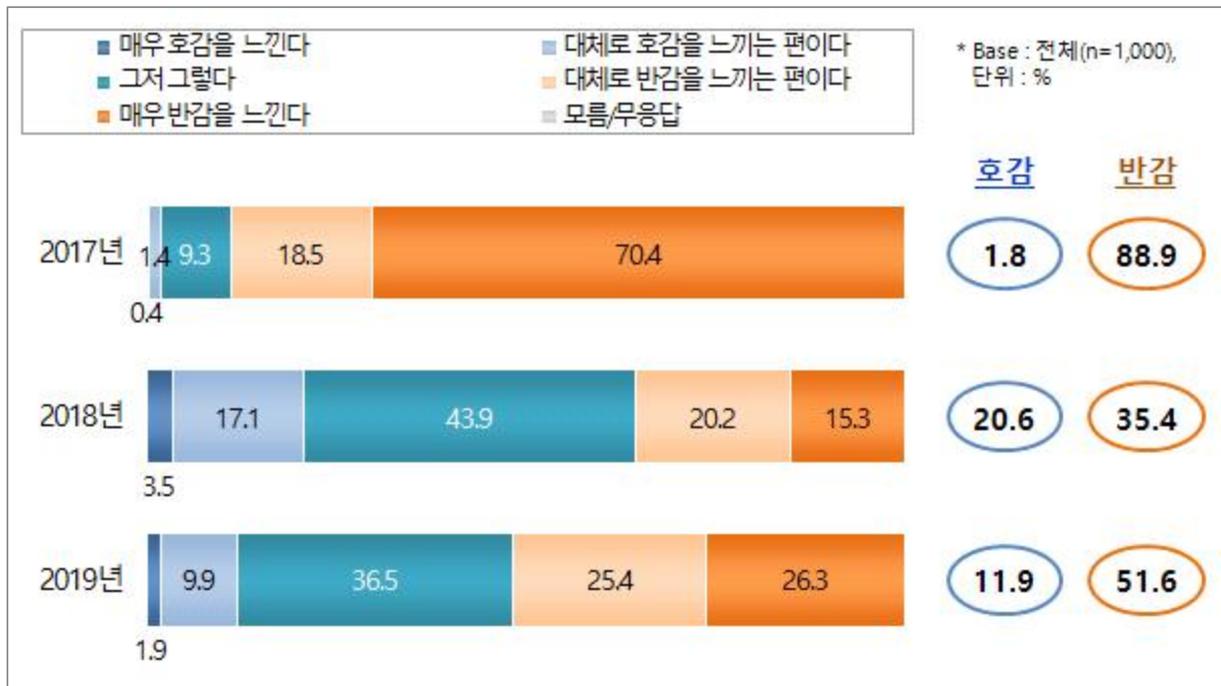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명)	백분율 (%)
	전체	(1,000)	100.0
지역별	서울	(193)	19.3
	인천/경기	(307)	30.7
	부산/울산/경남	(155)	15.5
	광주/전라	(99)	9.9
	대전/충청/세종	(105)	10.5
	대구/경북	(100)	10.0
	강원	(30)	3.0
	제주	(11)	1.1
성별	남성	(495)	49.5
	여성	(505)	50.5
연령별	20대	(171)	17.1
	30대	(164)	16.4
	40대	(197)	19.7
	50대	(201)	20.1
	60대 이상	(267)	26.7
직업별	화이트칼라	(376)	37.6
	블루칼라	(109)	10.9
	자영업	(153)	15.3
	주부(전업)	(231)	23.1
	학생	(58)	5.8
	기타/무직	(74)	7.4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81)	8.1
	100~200만원 미만	(140)	14.0
	200~300만원 미만	(199)	19.9
	300~400만원 미만	(215)	21.5
	400만원 이상	(365)	36.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62)	6.2
	고졸	(263)	26.3
	대재 이상	(675)	67.5

3. 조사 내용

1) 북한에 대한 인식

① 북한의 정권에 대한 호감도(문1)

-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해 ‘반감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51.6%이며, ‘그저 그렇다’는 중도적인 입장의 응답자는 36.5%,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11.9%임.
- ‘반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2017년(88.9%)보다 2018년(35.4%)에 크게 감소(53.5%p↓)하였다가, 2019년(51.6%)에 증가(16.2%p↑)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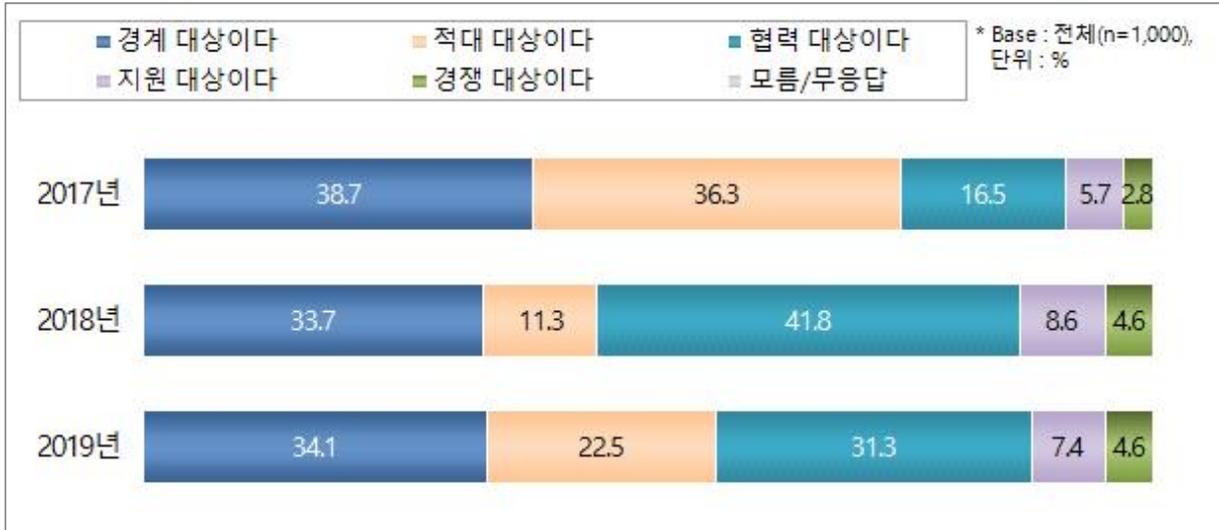


<그림 1> 북한 정권에 대한 호감도

②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문2)

- 북한은 ‘경계 대상’(34.1%)이라는 응답과 ‘협력 대상’(31.3%)이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남. 최근 북한의 행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을 ‘경계 대상’으로 보는 응답은 큰 변화가 없는 한편,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의견은 2017년(16.5%) 대비 2018년(41.8%)에 큰 폭(25.3%p↑)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31.3%)에 10.5%p 감소함.



<그림 2>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2)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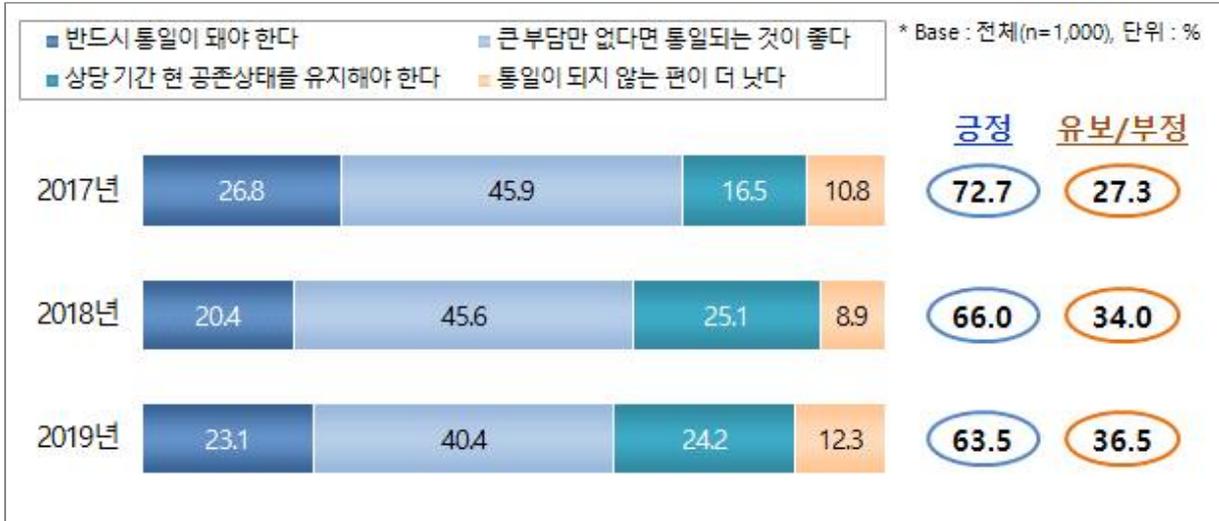
① 통일에 대한 관심 정도(문3)

-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73.0%로 통일에 대한 관심도는 비교적 높은 편임.
 - ▶ ‘매우 관심이 있다’: 27.9% + ‘대체로 관심이 있는 편이다’: 45.1%
-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2017년(73.1%), 2018년(75.9%), 2019년(73.0%)에 걸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②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문4)

- 통일에 대해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되는 것이 좋다’(40.4%)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당 기간 현 공존상태를 유지해야 한다’(24.2%)는 응답과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23.1%)는 응답이 비슷함.

- 전반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편임.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되는 것이 좋다’)은 2018년(66.0%)과 2019년(63.5%)에 비슷하게 나타남.



<그림3>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③ 통일 시기에 대한 전망(문5)

- 통일 시기에 대한 전망은 ‘11년~20년 이내’(27.5%)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6년~10년 이내’(22.8%)를 응답하고 있음.
- 응답자의 과반수인 55.9%가 통일 시기를 ‘20년 이내’로 예상하고 있음.
 - ▶ ‘5년 이내’: 5.6%, ‘6년~10년 이내’: 22.8%, ‘11년~20년 이내’: 27.5%
- 시기에 관계없이 ‘통일이 가능하다’는 의견은 79.4%인 반면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20.6%로,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많음.

④ 통일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문6)

- ‘남한주민의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47.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다음으로 ‘정치·군사적 혼란’(24.1%)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았음.
- 최근 3년간 조사에서 ‘남한주민의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이라는 응답(2017년 41.7%, 2018년 47.9%, 2019년 47.2%)이 가장 높게 나타남.

⑤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문7)

-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1+2순위)로 ‘북한 핵문제 해결’(61.5%)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군사적 신뢰 구축’(40.6%)과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36.7%)을 응답함.
- 2018년과 비교했을 때,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2018년 42.0%→2019년 36.7%)에 대한 응답은 5.3%p가 감소하였으며, ‘북한 핵문제 해결’(2018년 58.1%→2019년 61.5%)과 ‘군사적 신뢰 구축’(2018년 37.7%→2019년 40.6%)은 각각 3.4%p, 2.9%p 증가함.

⑥ 통일에 도움이 되는 관련 국가(문8)

- 통일에 도움이 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49.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없다’(38.4%)는 응답이 많음.
- 연도별 조사결과를 보면, ‘미국’을 응답한 비율이 2017년(36.3%) 대비 2018년(47.4%)에 크게 증가하였고, 2019년(49.0%)에도 소폭 증가함.

⑦ 통일세 부담에 대한 의견(문9)

- 통일비용을 세금 형식으로 부담할 경우 ‘연소득의 1% 미만’(29.9%)과 ‘연소득의 1~5% 미만’(28.0%)을 부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남.
- 비용에 관계없이 ‘개인 부담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은 73.8%로 나타나, 2018년(73.7%)과 비슷한 수준임.

3)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

① 북핵문제에 대한 전망(문14)

- 북핵문제는 ‘당분간 해결이 어려울 것’(57.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쉽지는 않지만 해결될 것’이라는 응답이 34.2%임.

- 핵문제 해결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39.7%='원만하게 해결될 것' 5.5% + '쉽지는 않지만 해결될 것' 34.2%)보다 부정적인 전망(60.3%='당분간 해결이 어려울 것' 57.6% + '무력으로 해결될 것' 2.7%)이 전반적으로 우세함.
- 핵문제 해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2017년(75.0%)보다 2018년(44.7%)에 30.3%p 감소하였으나, 2019년(60.3%)에 15.6%p 증가함.

② 북핵문제의 해결방안(문15)

- 북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남북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27.6%)는 응답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24.7%)가 비슷하게 나타남.
다음으로, '6자회담을 통해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20.6%), '북미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19.1%)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음.
- '남북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8년(29.9%)과 2019년(27.6%)이 비슷하였으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2018년(19.7%)보다 2019년(24.7%)에 5.0%p 증가함.

③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의 연계(문16)

- 북핵문제와 남북경제협력의 연계에 대해 '소규모 경제협력도 연계해야 한다'(40.2%)는 응답과 '북핵문제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39.2%)는 응답이 비슷함.
- 연도별 조사결과를 보면 2017년에는 '북핵 문제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46.1%)는 의견이 '소규모 경제협력도 연계해야 한다'(36.9%)보다 9.2%p 높았으나, 2018년에는 '소규모 경제협력도 연계해야 한다'(47.9%)는 의견이 '북핵 문제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29.7%)보다 18.2%p 높았으며, 2019년에는 두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남.

2)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① 최근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문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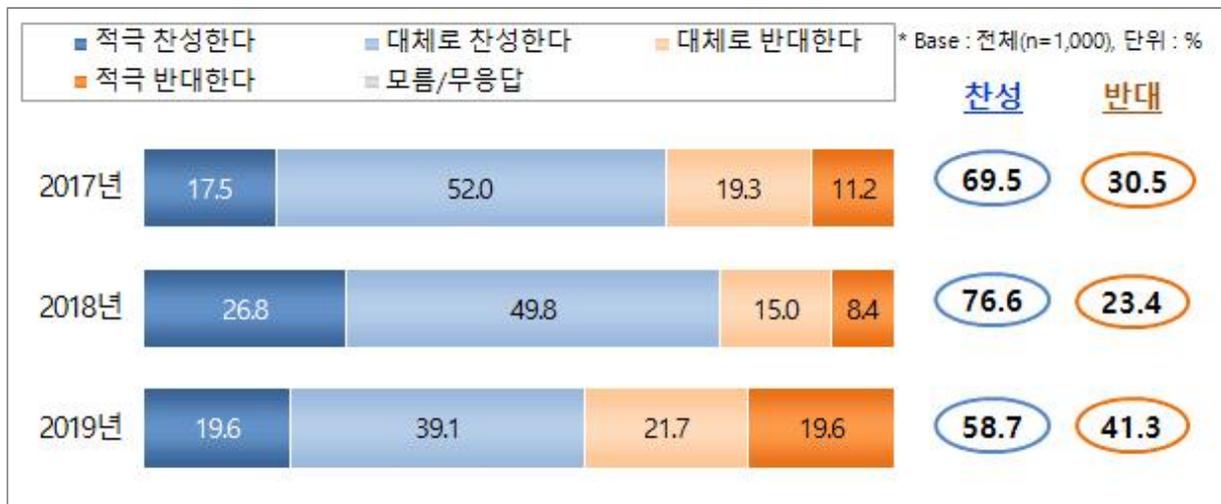
-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해 응답자의 61.6%('매우 불안하다' 22.5% + '약간 불안

하다' 39.1%)가 '불안하다'고 응답함.

- 안보상황에 대해 '불안하다'는 의견은 2017년(70.7%='매우 불안하다' 23.5%+ '약간 불안하다' 47.2%)보다 2018년(53.3%='매우 불안하다' 11.4%+ '약간 불안하다' 41.9%)에 크게 감소하였으나, 올해 다시 일정 정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됨.

② 현(現)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찬반(문19)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찬성'(58.7%='적극 찬성' 19.6%+ '대체로 찬성' 39.1%)이 '반대'(41.3%='적극 반대' 19.6%+ '대체로 반대' 21.7%)보다 17.4%p 높음.



<그림 4> 현(現)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찬반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찬성'은 집권 1년차(2017년 69.5%)와 집권 2년차(2018년 76.6%)보다 낮은 수준임.

③ 대북 교류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의견(문10, 문11, 문12, 문13)

- 금강산 관광 사업, 개성공단 사업, 대(對) 북한 식량지원의 제한적 진행, 5·24 조치와 관련하여 '조건부로 재개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 '금강산 관광 사업'(62.7%), '개성공단 사업'(56.8%), '식량지원'(59.1%)에 있어 모두 '조건부로 재개/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로 가장 많음.

- ▶ 5·24조치와 관련해서는 ‘5·24조치를 완화해야 한다’(45.3%)는 응답과 ‘5·24조치를 유지해야 한다’(41.6%)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남.

대북교류 사업 및 정책	교류 재개/확대	조건부 재개/확대	교류 중단/폐쇄
금강산 관광 사업	즉시 재개 (18.9%)	조건부로 재개 (62.7%)	계속 중단 (18.4%)
개성공단 사업	전면적으로 재개 (22.2%)	조건부로 재개 (56.8%)	현 폐쇄상태 유지 (20.9%)
대(對) 북한 제한적 식량지원	큰 폭으로 확대 (8.5%)	조건부로 확대 (59.1%)	이전처럼 중단 (32.3%)
5·24 조치	5·24 조치 해제 (13.1%)	5·24 조치 완화 (45.3%)	5·24 조치 유지 (41.6%)

- 연도별 조사결과를 보면, 금강산 관광 사업 및 개성공단 사업, 북한 식량지원을 ‘조건부로 재개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2018년에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9년은 2018년보다 소폭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임.

- ▶ 금강산 관광 사업 ‘조건부로 재개’

- 2017년: 57.8% → 2018년: 68.5%(10.7%p ↑) → 2019년: 62.7%(5.8%p ↓)

- ▶ 개성공단 사업 ‘조건부로 재개’

- 2017년: 54.2% → 2018년: 60.2%(6.0%p ↑) → 2019년: 56.8%(3.4%p ↓)

- ▶ 대(對) 북한 제한적 식량지원 ‘조건부로 확대’

- 2017년: 52.5% → 2018년: 65.1%(12.6%p ↑) → 2019년: 59.1%(6.0%p ↓)

- ‘5·24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낮아지는 추이이며,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 5·24조치

- ‘완화’ - 2017년: 60.2% → 2018년: 47.9% → 2019년: 45.3%

- ‘유지’ - 2017년: 22.8% → 2018년: 37.7% → 2019년: 41.6%

3)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견

① 6·15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견(문17)

- 2000년에 이뤄진 ‘6·15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성과가 없었다’(55.8% = ‘전혀 성

과가 없었다' 13.7% + '별로 성과가 없었다' 42.1%)는 의견이 '성과가 있었다'(44.2%='매우 성과가 크다' 6.2% +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38.0%)는 의견보다 많음.

- 2018년 조사에 비해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상승함.
 - ▶ '성과가 없었다' - 2018년 : 46.6% → 2019년 : 55.8% (+9.2%p)

②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문18)

-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78.7%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39.3% + '어느 정도 개최될 필요가 있다' 39.4%)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2018년(86.1%)보다 7.4%p 감소함.